

한옥마을에서 전주 문화재 의미 음미하세요

전주야행 천년벚담 행사 개최... 전통성당 음악회 국악뮤지컬 등 다채

전주의 역사와 문화재의 이면에 담긴 가치가 발현돼 다시금 자부자부 살아가는 것이다.

(재)전주문화재단 전주야행추진단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전주야행 '천년벚담'을 개최한다.

추진단은 한 밤 문화재 개방과 함께 문화재를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엮어 보존에만 머물러 있던 문화재들을 친밀하게 선보이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오는 30일 한옥마을 일대. 전주야행 천년벚담은 전주의 역사를 한 밤에 둘러보는 이색적인 체험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그램에 더욱 내실을 기했다.

승고한 정신과 희생을 담아낸 천주교 순교사 전시회는 한국 천주교 역사의 산실인 전주와 아름다운 건축으로만 알려진 전통성당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한다.

지난 8월 전통성당에서 열린 성당음악회는 이번에는 야외로 그 자리를 옮겼다.

동정부부의 삶과 신앙인들의 정신을 담은 국악뮤지컬은 종남문을 배경삼아 펼쳐진다.

전주향교에서는 선비문화를 살려낸 국악공연과 함께 향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향시례와 전통의복 체험 등을 담은 소화캠프가 열린다.

또 한옥마을 관광객, 전주야행을 찾은 참가자들과 함께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장소와 전통을 찾아가는 '달빛가행'은 발품을 팔아 전주를 제대로 아는 흥미로운 시간이다.

조선왕조의 뿌리를 찾아 나서고, 인쇄출판문화의 중심이었던 전주의 아름다운 현관을 따라가고 사교석담과 사재관 십자꽃담 등을 둘러보는 등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테마별로 전주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는 자

리다.

영화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전주문화재를 영화음악으로 만나는 '달빛놀이'와 전주의 인쇄, 출판문화를 음악과 함께 즐기는 인판본 토크 콘서트 등도 이번 야행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지난 행사에서 호평을 받았던 경기전의 달빛차회 오페라 낭송 낭독대회, 강강수월래 플래시몹, 탈춤 게임 등은 주제를 달리하거나 풍성하게 마련해 이번 전주야행에서도 진행 된다.

전주야행 문운걸 추진단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의 역사를 배경 삼은 문화예술이 전주야행의 첫 시작이었다면, 이번 전주야행에서는 더 많은 공감을 통해 전주 역사를 오롯이 담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275-6944~5. /정혜은 기자



30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전주야행 천년벚담'의 행사포스터다.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더욱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순창군, 장류축제 성공위한 아이디어 발굴

제11회 순창장류축제가 가을 대표축제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17개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장류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황숙주 군수가 직접 주재했으며 각부서에서 운영하는 48개 입구에 대해 각 실과장이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 새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관광객 체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순창장류축제에서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장류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집약한 '전통장류상설체험장'을 프로그램 전면에 배치하고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해 셔틀택시 확대와 관광용 전기차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황숙주 군수는 "장류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항상 내일 시작해봐도 될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자연의 맛 그대로, 순창의 맛 세계로'라는 주제로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린다. /순창=이양원 기자



가수 이은미, 10월부터 8개 도시 투어

'맨발의 디바' 이은미가 다음달 21일 양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8개 도시를 도는 투어 콘서트 '더 라이브(THE LIVE)'를 시작한다.

다음달 29일~30일 창원 KBS홀, 11월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이어 11월12일 부산 KBS홀, 11월19~20일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12월3일 울산 KBS홀, 12월11일 천안 예술의전당, 12월17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으로 이어지는 무대에서 라이브의 여왕다운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1992년 1집 '기억속으로'를 발매하고 솔로로 데뷔한 이후 900회 이상 콘서트를 개최하며 '라이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은미의 1000회 공연 기록을 앞둔 시점이다. 현재 녹음 작업 중인 신곡 뿐 아니라 리메이크곡을 포함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의 성지로 불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은 이은미의 라이브를 최고의 사운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연기획사 측은 "어떤 그리움 '기억속으로' 해인 있어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녹턴' 등 전 세대를 위로한 이은미의 발라드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뉴시스



박물관 관계자는 "작고하는 순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을 담은 작품들을 가을의 무르익음과 함께 감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간의 흐름을 담은 정물화 감상하세요"

근대역사박물관, 하반기 화백 '시간의 흔적' 주제로 23점 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분관 정미갤러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간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화백의 작품전을 연다.

지난해 1월 작고한 허하연 화백은 군산출신 화가로 7세부터 수묵화를 그려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에서 민족과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 개인전 50회, 해외 초대전 10회, 국제전 150여 회를 치른 바 있다.

이번 전시는 가을을 맞이해 지금의 계절을 유추할 수 있는 정물화 및 풍경화로

대표작인 '거사' (2011)을 비롯한 23점을 선정해 전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작고하는 순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을 담은 작품들을 가을의 무르익음과 함께 감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정미갤러리는 복원된 근대건축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1층은 하 화백의 회화 전시와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자료실로, 2층은 하 화백의 상설 전시장으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내일 전북민족예술제 개최

우진문화회관에서 '고조선에서 현대까지' 역사여정 예술에 담아

제13회 전북민족예술제가 '고조선에서 현대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7시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고조선~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여정을 예술에 녹여낸다.

민족예술제는 우리의 뿌리에 해당하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 삼국시대 백제의 혼을 더듬어가고 남북국시대를 연 잃어버린 나라 '발해'의 기상을 반추해 본다.

또 고려시대의 문화와 예술의 향수를 현대적 의미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태조어진과 관련한 콘텐츠허 음악으로 형상화 한다. 개화기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하여 문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 윤동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시인의 시를 노래로 들려준다. 이외에도 해방 이후 분단 극복과 통일을 염원하는 격동의 한국사회를 이끈 민중의 저항정신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전북민예총 주최하고 전북민예총 문화분과가 주관하는 이날 공연은 전북지역 작가, 시인, 연극인, 음악가, 퍼포머, 명창, 무용수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적 교류와 창작의 기회를 열어가는데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적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문의 010-9354-7708. /정혜은 기자



전북민예총 주최하고 전북민예총 문화분과가 주관하는 이날 공연 '전북민족예술제'는 전북지역 작가, 시인, 연극인, 음악가, 퍼포머, 명창, 무용수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 <2016년 9월 28일>

<p>▷쥐띠</p> <p>46년생: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는 듯 하나 복병이 있다. 60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2년생: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라.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천운이 따른다.</p>	<p>▷소띠</p> <p>49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1년생: 식욕이 있으니 식사 약속을 하거나 모임에 갖는 것도 좋다. 73년생: 중요한 일이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평소애 어려워 하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p>	<p>▷호랑이띠</p> <p>50년생: 손아래 사람의 밑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아이디어. 62년생: 반질반질의 운세로 기쁜일과 어려움이 함께 있다. 74년생: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잊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86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만한 일이 발생.</p>	<p>▷토끼띠</p> <p>51년생: 처음에는 서로 좋으나 후반에는 시기가 들어간다. 63년생: 먼저 베풀어야 말이 없다. 옮겨주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75년생: 일에 손아귀 풀에는 좋은 법이다. 8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운.</p>
<p>▷용띠</p> <p>5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64년생: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치 된다. 76년생: 커디션이 좋지 못하여 몸이 처지는 때니 유의하라. 88년생: 어려움이 따르니 이성적 도움을 받아라.</p>	<p>▷뱀띠</p> <p>53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잘 되고 뜻이 잘 통한다. 65년생: 인덕이 따르니 힘든일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77년생: 처음에는 고난이 따르나 후반에는 풀리니 걱정하지 마라. 89년생: 좋은 운이 도래했으니 열정과 진취성만 가지고 행하라.</p>	<p>▷말띠</p> <p>54년생: 문서에 갈일이 들었으니 좋은 문서를 얻게 된다. 66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이 따른다. 78년생: 정신이 맑아 중요 판단이나 결정은 타인과 상의. 90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있으니 잘 해결될 것이다.</p>	<p>▷양띠</p> <p>55년생: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6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은 운. 79년생: 금전운은 좋으나 건강을 조심하고 병충은 초기에 다스려라.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자칫 원망을 듣게된다.</p>
<p>▷원숭이띠</p> <p>55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제약받을 일이 생기니 대립하지 말라. 69년생: 시기를 당하거나 손해수가 따르니 다른 사람의 말을 경계. 80년생: 부부나 연인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운. 92년생: 실물수가 있으니 중요한 물건은 잘 보관.</p>	<p>▷닭띠</p> <p>5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69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81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 결국 돌파. 93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거나 진행 하기에 좋은 운.</p>	<p>▷개띠</p> <p>48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0년생: 정교한 기계를 다루거나 도구를 다룰때 주의. 70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 82년생: 동기간과 시기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돼지띠</p> <p>47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59년생: 동생성 있게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손아래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삼가라. 83년생: 세 명은 분쟁이 생기니 두 명이 움직여야 잘 해결.</p>